

#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추징 1263억

특검 "비선 탐욕·악용 사건 실제" 검찰 "바른 이용 헌법 가치 훼손"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적'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제"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합계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등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첩'과 통화 및 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구당초 모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평개연)-구당초(당을 구하는 조선의원) 오찬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성열(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정배, 조배숙, 이상돈, 장정숙, 김광수, 박주현, 정동영, 최경환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을 비난하는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40년 자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

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은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에 깊이 개입했고 사기업 자금을 이용해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운영하거나 친분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했다"며 "최씨는 재단 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업을 지시했고 대통령을 통해 정부정책 및 해외순방과 연계·시행했음에도 감압수사를 주장하며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실체를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 등과 통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이익 귀속 주체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장학수 전북도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시진)은 1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7년 한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북지역에서는 광역 기초의원 중 장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약이행 분야, 좋은조례 분야에 대해 약속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장학수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에 선정됐다.

좋은 조례 분야의 심사기준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이다.

장 의원은 "12년간 자신을 믿고 심부름꾼으로 써 준 정읍시민들께 이 영광을 돌린다"며, "의정활동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께 여운을 주고 떠날 수 있는 전라북도 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 興, 5·18 특별법 무산에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과연 자유한국당은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는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를 광범위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복작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한국당 국방위원들이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처리가 무산됐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질문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명을 구하는 방탄 국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을 위해 출국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며 "해외 시찰을 잡고 공청회 소집(을 주장)한 것은 법안 통과를 안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안 발목 잡기는 아닐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오만도주고, 쫓겨나고,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興, 경제민주화·지방분권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관련해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을 논의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의 구성원은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사정대타협, 사회적대타협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총론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분권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는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형태변의 개헌이 아니라 지방분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 줘야 되기에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당 차원의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무역도 '사람이 먼저'... 진정한 동반자 만나길"

文대통령,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양국기업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기념사에서 "무역과 경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새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은 한·중 기업 간 교류를 위한 수출 상담행사다. 화장품·한류 콘텐츠·관광분야 중소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중국 바이어와 상담한다.

문 대통령은 "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고, '사업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라'는 중국 속담도 있다"며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 모두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행사를 시작할 때 징을 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징소리는 잡귀와 악운을 쫓는 뜻이 담겨있다"며 "평을과 함께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업 173곳, 중국 현지 바이어 500여곳 등 총 67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정부는 2018년에도 한류와 연계한 비즈니스 행사를 추진해 대중국 투자와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전 시작을 알리는 '타징'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후 문 대통령은 별도로 마련된 우수 소비재 쇼케이스, 한류 대표 기업 홍보부스, 한류콘텐츠관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현대자동차 부스에 들른 문 대통령은 정 의선 부회장에게 "중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앞으로 잘 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 부회장은 "와주서서 영광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류스타 송혜교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멤버 중 첸·시우민·백현이 참석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뉴시스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군민의 참 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진안군의회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